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14期(2026.10.25) WWW.MINGHUI.ORG 한글판 1078호 minghui.or.kr

▲ 2026년 10월 17일, 대만 파룬따파 수련 교류회를 앞두고 약 4600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大法'(대법) 두 글자와 거대한 연꽃, 38줄기 빛을 만들었습니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85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775만 4285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양절에 개막했다.

## 주 요 내 용

【중국법회】 내 '수련 파트너'에게 감사드린다
【중국법회】 누명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닦아 없애다
【중국법회】 사람에서 신으로 성취되는 길을 걷다
【중국법회】 진상을 알리는 길에서 사존께서 보호해주시다

## 〈목차〉

### 제23회 중국법회

내 '수련 파트너'에게 감사드린다 ····· 3

누명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닦아 없애다 ····· 23

사람에서 신으로 성취되는 길을 걷다 ····· 34

진상을 알리는 길에서 사존께서 보호해주시다 ····· 53

마침내 대면하여 사람 구하는 한 걸음을 내딛다 ····· 69

대법을 수련하는 굳건한 의지 ····· 77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지만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부님과 대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아직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알지만, 용맹정진(勇猛精進)하며 자신을 착실히 수련해, 무사무아(無私無我), 선타후아(先他後我) 하는 대법제자가 되어 세상에 온 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저는 사부님의 설법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는 공평한 것으로, 생명은 잘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갚아야 한다. 이번 생(生)에 갚지 못하면 다음 생에 갚아야 하는데, 이는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이다!” “인과응보, 이것이 인생에 복이 있고 복이 없는 근본 원인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이 다 해줘야 하는가? 조건은 당신이 반드시 전세에 쌓은 복덕이 있어야 하고, 복덕으로 바꾸어야 한다!”(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투신하시겠다고 저를 협박하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널 협박하는 게 아니라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어머니는 제가 대법 수련을 포기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은 다 헛수고였구나, 널 설득할 수 없구나!” 그러고는 일어나 다른 일을 하러 가셨고, 한 차례의 정사(正邪)간의 대결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감정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고 기분도 갈수록 좋아지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대법을 수련하려는 제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수련을 견지하는 데 가해진 어머니의 강력한 저항이 제 대법 수련에 대한 한 차례의 중대한 고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 대법을 수련하는 저의 금강 같은 의지를 단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저의 혈육의 정과 모자의 정을 제거해 주셨으니 이것들은 모두 수련의 길에서 좋은 일이며 사부님께서 저를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것은 제 인생길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올



## 중국법회

# 내 ‘수련 파트너’에게 감사드린다

글/ 베이징 대법제자

[명혜망]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후, 수련의 길에서 제 제고를 도와준 사람들은 마치 배구팀의 연습 파트너와 같았습니다. 팀의 연습 파트너는 매일, 매년 단련을 거쳐 세계 챔피언을 길러냅니다. 우리 수련의 길에 있는 ‘수련 파트너’도 매일, 매년 우리가 원만(圓滿)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를 성취시키고 집착을 닦아 없애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 저는 대부분 시간에 ‘수련 파트너’에게 원망심, 쟁투심, 불만, 반항, 심지어 분노하거나 멀리하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법리를 깨달은 이후, 비록 원망스럽긴 했지만 행동으로는 ‘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속으로는 원망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법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저는 원망도 증오도 없이 행하는 단계로 승화됐고, 원망이 없이 오직 감사함만 남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를 시시각각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 각종 사람 마음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법공부를 잘해야만 매번 수련의 기회를 깨달을 수 있고, 법공부를 잘해야만 아주 작아 보이는 매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자신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맞아, 저는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 속에서 제 슈퍼 ‘수련 파트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써서 수련

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 1. 모두 어머니 잘못입니다

어머니는 속인 중에서 좋은 사람에 속하며, 본분이 바르고 선량하십니다. 일할 때 성실하게 임하셨고 돈과 명예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가정뿐이었고, 소박하고 따지지 않으셨으며 털털하셨습니다. 수련하기 전에는 어머니와 아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저와 어머니는 모두 판단 기준의 차이가 없었기에 화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해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저희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겼고 게다가 넘어설 수 없어 보였습니다. 1999년 '4·25' 이후, 수련생이 찾아오기만 하면 어머니는 반드시 눈살을 찌푸리고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7·20' 이후, '대법(大法)'이라는 두 글자는 가정의 금기어가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경계하고 비우호적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니는 단순하고 난폭한 행동을 극심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보실 때는 항상 차가운 시선이었고, 입을 여시면 모두 명령과 질책이셨습니다. 두 번이나 중공의 박해를 당하면서 저희 사이의 관계는 더욱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줄곧 훌륭하던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경찰', '구류소' 등등 '나쁜 사람'과 관련될 법한 단어와 연결된단 말인가? 어떻게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성토하는 대상과 한패란 말인가? 게다가 '죽어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라니.

어려서부터 줄곧 어머니의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들었던 저의 그 당시 모습은 어머니로 하여금 제가 '마에 씌었다'고 느끼시게 하기에





연공을 해서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소란을 피울수록 화를 더 내셨고, 심지어 투신하겠다고 울부짖으며 저에게 대법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강력한 정념을 발했습니다. '배후에서 어머니를 조종해 사부님과 대법에 악념을 품게 하는 모든 흑수, 난귀, 공산사령(共産邪靈)과 중공 악당이 다른 공간에 있는 일체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히 해체하며, 구세력의 일체 안배를 부정한다. 흑수, 난귀, 구세력이 그 어떤 구실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어머니를 훼멸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제 정념이 나오자 어머니의 말투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기세를 몰아 부드럽게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부님과 대법에 불경한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께도 제게도 좋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가 자극받으실까 염려되어 말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연공한 후 좋지 않은 생활 습관도 많이 고쳤고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자제력도 커졌고 도덕 기준도 높아졌어요. 이건 어머니께서도 보신 건데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욱 공경하고 효도할게요. 만약 악당이 일으킨 이 전대미문의 박해가 없었다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시겠어요? 다 악당의 박해 때문이에요." 제 말을 들은 후 어머니는 마음이 가라앉으셨고 애원하는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다 빠졌다. 부탁이니까, 나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또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참아다오."

수련에 갓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법 법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직면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저는 반복해서 '전법륜'을 외우고, '논어'와 새 경문을 외웠으며, 수련하려는 제 의지는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솟아올랐습니다.

올해 4월, 저는 손으로 쓴 대법 진상 자료를 교내 곳곳에 두어 더 많은 교사와 학생이 보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발견돼 신고당했고, 학교 지도부는 담임 선생님을 불러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셨고 저와 면담하며 이 일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주 엄하게 '비판 교육'을 하셨지만, 저는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 일을 무마해 주셨고, 직면할 뻔했던 위기는 사부님에 의해 무사히 해결됐습니다.

저는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며 올해 대입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입시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력을 발휘해 성적이 본과 커트라인을 넘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두 분은 별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간절하셔서, 무엇이든 제가 남보다 뛰어나길 바라셨고 초등학교 때부터 각 과목 학원에 보내셨기에 제 성적은 늘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대입시험 성적이 아는 분의 자녀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시자 질투하는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더 심하셔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돌변하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마저 달라졌고 저를 향해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셨으며, 제가





충분했습니다. '마가 씌운' 아이에게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실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 경험이 오직 '당'을 따라가는 것뿐이고, 게다가 '당 어머니'의 '관심' 아래 수많은 특별한 영예를 얻으셨던 어머니로서는 기본적으로 저를 '계급의 적' 위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때 제 심성은 '누구든 파룬따파가 안 좋다고 말하면 곧 적'이란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적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점잖은 편이었습니다. 저에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기만당한 후의 허튼소리를 이해하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어 처한 위험을 고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어머니에 대한 자비와 사랑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적에게는 도무지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 저 스스로 자신이 확고한 대법제자라고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차 어머니와의 말다툼은 냉전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게다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일까? 왜 자신의 자녀를 믿지 않고 도리어 중공 텔레비전과 신문의 거짓말을 믿으신단 말인가? 모성애, 혈육의 정이 정치적 태도 앞에서는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게 변해버렸단 말인가?' 점차 제 분노는 언어와 겉모습에서 마음속으로 옮겨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 어머니가 계신 곳이면 저는 피했고,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시면 어머니는 즉시 돌아서셨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찼고, 냉담한 적막 아래에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대립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많은 갈등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 은퇴

생활이 시작되고 어머니와 아침저녁으로 함께 지내는 '룸메이트'가 된 후, 저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를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상적인 언행 중에 어쩌면 그렇게 제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생활 속의 마찰은 본래 낯설고 차가운 관계에 증오와 원망이라는 첨가제를 더했습니다.

이런 '원망'은 저희의 서로 다른 가치관, 사물을 인식하는 논리, 지식수준, 삶의 질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됐습니다. 한마디로 제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수시로 제 원망의 수문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발점들은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모두 갈등이었습니다.

수련을 한 덕분에 제 두뇌는 매우 논리적으로 변했고,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하고 시원스러워졌으며, 집안을 티끌 하나 없이 치웠고, 지식의 폭도 매우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공부에 문제가 많았던 제가 갑자기 무엇을 배우든 빠르고, 무엇을 배우든 복잡하지 않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대법의 지혜를 얻은 후 다시 보니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어머니는 이미 고령의 노인으로서, 보통 노인들처럼 까다롭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으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출근하실 때도 업무와 관련된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을 접해본 적이 없으셨기에 노년이 되신 후 지식의 폭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본래 급하셨던 성격이 연세가 드시고 청력이 떨어지시면서 더더욱 제가 적응하기 힘들게 하셨고, 대립면에 있는 이 어머니가 늙고 무능하고 완고하고 단순하며 난폭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련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 시련

제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을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2025년 봄 어느 주말, 저는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가방을 정리하시다가 제가 베껴 쓴 '전법륜'을 발견하시고는 큰 충격을 받고 매우 화를 내시며 어떻게 된 일인지 꾸짖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속으로 좀 두려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체제 내에 있는 분들로, 비록 이미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해 중공 악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셨지만, 사악이 파룬궁을 비방하는 선전에 아주 깊이 중독돼 파룬궁에 대해 거부감이 컸고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베껴 쓴 '전법륜'을 압수하셨고,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거듭 신앙을 포기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권고도 듣지 않는 것을 보시자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사부님과 대법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시며 오랫동안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곧장 정념을 발해 다른 공간에서 어머니를 조종해 사부님과 대법에 불경하게 구는 흑수(黑手), 난귀(爛鬼)를 제거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조부모님과 연락하고 왕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장기간 이런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수련을 견지하기란 그야말로 너무 어려웠고, 이는 제가 수련한 이래 나타난 첫 번째 큰 고비였습니다.

法輪)'이라는 것을 알았고, 조부모님께서 파룬궁을 연마하신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듣는 것은 온통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비방하는 선전뿐이었고, 특히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세기의 조작극이자 중공이 직접 연출한 국가적 범죄 행위로, 세상 사람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파룬궁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조부모님 댁에서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알고 싶었지만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를 깨달았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은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됐고, 더 이상 흐리멍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환경이 아주 열악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업도 매우 빠듯해 법공부를 할 수 없었으며, 연공은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학 시간을 이용해 방학 숙제를 끝내면 바로 '전법륜'을 외웠고 사부님의 신경문을 외웠는데, 이것이 이후 수련의 기초가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는 대법의 '진선인(眞·善·忍)'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며, 남에게 선하게 대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며, 반 친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기에 친구들과 아주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음료수 마시기, 군것질, 휴대폰 게임 등 좋지 않은 기호도 점차 끊고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의 신체를 정화해 주셔서 몸이 아주 건강해졌으니, 대법을 수





인터넷이 모든 것에 넘쳐나는 시대에 어머니도 아주 자연스럽게 인터넷의 포로가 되셨고, 모든 언행이 인터넷의 지시를 출발점으로 삼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인터넷 선생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제게 '소귀에 경 읽기'와 같은 고뇌를 안겨줬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제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각종 지시를 내리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수통 물은 쓰면 안 된다. 세균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하며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활용수가 얼마나 더러운데요, 모든 생수통에 세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브랜드로 사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 지나 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생수통 물은 깨끗하지 않아, 인터넷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마시고 병이 났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랬어, 랩은 쓰면 안 된대, 플라스틱 제품은 다 독이 있대." "아, 맞다, 인터넷에서 그랬는데, 여주를 먹는 건 비소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래." "그리고, 온수기가 누전되니 쓰면 안 돼." "아, 멀티탭 구멍이 4개지만 가전제품 2개만 꽂아야 돼, 아니면 불나!" "휴대폰은 밤에 충전하면 안 돼" 등등 이와 같은 무수한 비슷한 지시들을 거의 매일 제게 던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막 라면 한 봉지를 집어 끓이려 하는 것을 보시고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먹지 마, 건강에 안 좋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한 번 먹는 건데 어때서요(사실 저는 라면에 집착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맥도날드를 시키려 할 때 어머니는 당장 말씀하셨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먹으면 안 돼, 건강에 안 좋아!" 제가 식탁에서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반찬을

두고 자리를 뜨려 할 때 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넘기면 안 되니 다 먹어야 돼.” 저는 하는 수 없이 몽땅 제 배 속으로 집어넣었고, 급기야 아버지는 저를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며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구두가 낡은 것을 보고 저는 좀 비싼 새 구두를 사왔습니다. 어머니는 보시자마자 즉각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신어, 환불해라, 내 구두 아직 멀쩡해.” 저는 얼른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구두는 다 낡았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낡으면 어때서? 아무도 안 봐.” 저는 하는 수 없이 분을 삭이며 환불하러 갔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수두룩했고, 어쨌든 제가 무엇을 하든 다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마치 억울한 며느리가 돼 못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안의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을 내가 돈을 내고, 모든 일도 내가 다 하고, 매일 이렇게 곁에서 모시며 돌봐드리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고 이치에 맞지 않게 구시다니!’ 이 때문에 저는 몰래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어머니는 외양을 전혀 꾸미지 않는 꾀죄죄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양옆만 염색해 정수리와 뒷머리는 모두 하얬습니다. 머리 양옆은 가지런한데 뒤쪽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스스로 염색하고 머리를 자르시다 보니 정수리와 뒷머리는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드리려 하면 어머니는 딱딱하게 쏘아붙이셨습니다. “네가 해줘서 뭐 하게?”

어머니가 식기세척기를 못 쓰게 하시고 주방세제도 못 쓰게 하셨기에, 어머니가 씻은 그릇은 제가 다시 다 씻어야 했습니다. 어





## 대법을 수련하는 굳건한 의지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8세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인도하에 한 걸음 한 걸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들어선, 이제 막 법을 얻어 수련하는 대법도(大法徒)입니다. 정법시기(正法時期)의 마지막 순간에 파룬따파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운이 좋았고, 더욱이 행복합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열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빌려, 법을 얻고 수련한 몇 가지 경험을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부족한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행히 대법을 얻다

부모님은 직장인이셔서 제가 태어난 후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조부모님은 저를 각별히 아끼고 예뻐하셨지만 절대 오냐오냐하지 않으셨고, 솔선수범하시며 제 성장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조부모님은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해 하루 종일 즐거워하셨습니다. 낮에 집안일을 끝내시면 책을 보셨고, 밤에는 연공하셨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조부모님께서 보시는 책이 ‘전법륜(轉

있고 연공을 배울 마음이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라디오를 들으세요. 이후에 다시 와서 사부님 설법 녹음을 가져다줄 테니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집에 들렀고 역시 삼퇴를 도와줬습니다.

이번에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번보다 훨씬 순조로웠고 아무런 교란도 없었으며, 중생들은 모두 법을 얻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사부님께서는 인연 있는 사람을 안배해 우리가 구하게 하십니다. 저는 구원자는 사부님이고 대법이며, 저는 오직 사부님을 돕는 대법제자이자 신의 사자(使者)로서 서약을 실현하고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법이 있으며, 정념 중에서 대법과 당신들은 같이 있는바, 이는 거대한 보장이다.”(각지 설법10-맨해튼 설법)

정말이지 사부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기만 한다면 사부님의 보호와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존께서 줄곧 이 부족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깨워 주시어, 마침내 대면해 사람을 구하는 이 한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존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제자가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머니는 비록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이런 하느니만 못한 일들은 저를 더 피곤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자신이 씻은 그릇을 제가 다시 씻는 것을 보시면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씻지 않으면 그 그릇들은 만지기만 해도 미끈거려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더럽다고 싫어할수록 어머니는 더 더러운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소변 본 후 물을 내리지 않으시더니, 나중에는 심지어 대변을 보시고도 물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계신 어머니를 향해 분노하며 돌진했습니다. “대변 보시고 왜 물을 안 내리세요?!” 어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러냐?”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씩씩대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러실까?’ 머리카락은 희고 검은 것이 섞여 길고 짧았고, 바지도 제대로 입지 않으셨으며, 얼굴의 검버섯은 유난히 눈에 띄었고, 입에서는 제 관념과 어긋나는 각종 인터넷 지시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눈앞의 이분을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 2. 모두 어머니의 잘못일까?

대법 수련자로서 저는 자신이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자! 말대꾸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참고 참고 참자! 그때 제 수련은 왜 참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참는 것만 남아 있어서 수련이 매우 힘들었고, 게다가 실질적인 변화와 제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주를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고, 생수통 쓰지 말라

하시면 쓰지 않고, 라면을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말 잘 듣고 얌전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원망은 어머니에 대한 느낌을 또 적대적인 것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찍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장모님과 안 친해 보여.” 무심코 한 이 말은 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맞아,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주는 느낌이 친근함이 아니라 냉담함과 어쩔 수 없음, 심지어 원한이라니, 나는 도대체 어떻게 수련한 거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원래 생활 속 작은 일도 두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대립하게 하고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깨알같이 작은 생활 속 일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의 갖가지 답답함은 큰 갈등이 만든 장벽 못지않았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인 문제에서, 심지어 비원칙적인 문제에서 저와 어머니는 늘 같은 궤도에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원망과 불만, 심지어 꺼리는 것이 그 단계에서 제 주요 마음 상태였습니다. 제가 비록 진상 알리는 일을 하고, 법을 배우고, 표면적으로는 수련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때의 자신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전혀 수련하지 않았고, 수련에는 작은 일이 없으며 생활 속 모든 것이 제 사람 마음을 겨냥해 온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정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사부님께서 끊임없이 발표하시는 경문, 각종 진상 자료, ‘9평 공산당’ 출간은 저에게 제 집착과 극단적 면을 보게 했고, 이 국면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인식하게 했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혼란을 풀어드릴 수 있는 수많은 소재를 얻게 했습니다. 저는 저희 사이 모든 불화와 불쾌함이 모두 제가 어머니에 대해 마음속에서 발하는 장(場) 때문에





탈퇴하겠냐고 묻자 좋은 일이라며 탈퇴하겠다고 대답했고 본명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배포하는 책(진상 소책자)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녀와 작별하고 스쿠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갈림길에 이르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살펴보니 역시 제가 찾으려던 사람들이었으며 그중 한 명은 예전 수련생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멈추고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예전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마침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을 찾던 참이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진상 라디오를 가져왔으니 이걸 들으세요. 이것이야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차에 타세요, 집에 데려다줄게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차에 탔습니다.

저는 다시 진상 자료를 꺼내 다른 사람들에게 한 권씩 나눠줬고, 그들도 진상 자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저는 이 예전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이 집에 들어가서 한 권 전해줘야겠어요.” 그녀와 인연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여주인이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지금 천재지변과 인재(人災)가 이렇게 많은데 서민들은 모두 삼퇴를 해 평안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천기인데, 소선대에 가입한 적이 있나요?” 그녀는 가입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대신해 탈퇴해 줄게요”라고 하자 그녀는 좋다고 대답했고, 이미 오래전에 진상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집을 나와 저는 이 예전 수련생을 태우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가서 라디오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아직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으며 대법 서적도 한 권 보관하고

해 평안을 지키세요.” 그는 아무 곳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라는 이 말을 외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심을 담아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매우 고마워하며, 자신은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대퇴골두 괴사가 와서 밭도 다 남에게 맡겼으며 아내는 늘 타향에서 일하며 돌아오지 않아 너무나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그는 거듭 제게 귤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먹지 않자 그는 억지로라도 쥐여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사부님께서 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집을 나와 보니 중생들이 진정 고통 속에 처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상 자료를 다 배포한 후 저는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존의 일깨움에 감사드리며 마침내 대면해 사람 구하는 이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람을 구할 마음을 품자 사부님께서는 인연 있는 사람이 제게 구원받게끔 안배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느 날 또 나가서 사람을 구하고 싶어 아침밥을 먹은 후 스쿠터를 타고 다시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요.” 뒤돌아보니 제가 줄곧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아직 삼퇴를 시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형 트랙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멈추고 잘 세워둔 뒤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저는 “바로 당신 집에 가서 삼퇴를 해 평안을 지키라는 좋은 일을 알려주려고요”라고 말하며 소선대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공청단과 소선대 모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성된 것임을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증오였습니다. 진상을 모르는 것을 원망하고, 생떼를 쓰시는 것을 원망하고, 이것이 밉고 저것이 원망스러운 등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원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머니의 대법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서 어머니에게 진상을 알려 중공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와, 짙은 안개에서 벗어나 햇빛 속으로 들어가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법공부를 통해, 어머니를 변화시키려면 우선 자신을 변화시켜 제 진실하지 못함과 선하지 못함을 제거해야 하고, 더욱이 사악한 것에 그토록 쉽게 이끌리고 교란받는 이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공간장(空間場)은 제가 주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처사한다면, 어머니의 명백한 일면은 바른 모든 것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령인 노인에게는 방법이 필요하고 난폭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인내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칭찬해 드린 지 얼마나 됐지?’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칭찬을 해?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지?’ 그러나 제가 원망의 안경을 벗고 순진하고 선량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을 때, 어머니에게 정말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게다가 많은 부분은 제가 배워야 할 장점이었습니다.

대화하는 분위기가 저로 인하여 파괴됐기에 저는 각종 기회를 찾아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어버이날 등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는 편지에서 저를 보살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파룬따파 진상, 중공 악당의 거짓말을 알려드렸으며, 누가 법을 어기고 있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 정치 운동을 겪으신 어머니는 중공 악당 통치하에서 정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셨고, 어머니의 친척 중 문화대혁명 때 박해받아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감대를 찾으니 진상을 꿰뚫을 수 있는 지렛대도 찾게 됐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제 신앙을 포함한 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요. 다시 말해 이전에 각종 갈등이 발생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어머니가 저로부터 제 신앙인 '진선인(眞·善·忍)'이 구현되는 모습을 전혀 보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세부적인 면에서 저는 어머니의 요구와 관념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그 내키지 않고 불쾌한 감정들이 모두 철저하게 제 집착하는 사람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찔까 봐 저녁을 많이 먹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는 남은 반찬과 밥을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음식의 색과 향, 맛이 모두 갖춰진 것을 좋아하면, 어머니는 남은 반찬을 색깔이 전혀 없게 데우셔서 푹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반숙 계란을 좋아하면 어머니는 무조건 노른자가 뻣뻣해지도록 삶으셨습니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일들은 다 제 집착을 겨냥해 온 것이었습니다. 색(色)에 대한 집착, 명(名)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등등. 여하튼 제가 무엇에 집착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엉망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면? 제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엉망으로 만드셨습니다.





쥐여주며, 삼퇴를 해 평안을 지키라고 알려줬습니다. 탈퇴하겠다고 하면 탈퇴를 도와줬고 탈퇴하지 않거나 태도를 밝히지 않는 이들에게도 대법을 반대하지 말라고 일러줬으며, 대법은 바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진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집 여주인이 마당에 서 있었는데,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삼퇴를 해 평안을 지키는 천기를 알려주자 시원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가명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가방 안의 진상 자료를 다 배포해 저는 다시 스쿠터로 돌아와 몇 부를 더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뒤쪽 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여전히 집집마다 전달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 진상 자료를 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막 마당을 나서려는데 방에서 사람이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저 안 가질 테니 가져가요!" 리(李) 형님의 딸인 것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받지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마세요. 대법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도 그녀는 진상 자료를 제게 돌려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에 수련하는 친척이 있었는데 박해받은 이후 연공하지 않게 됐고 그녀가 자료를 거부한 것이 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녀의 집에 진상 달력을 주러 갔을 때 남편은 제 권유로 삼퇴를 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기회가 되면 다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돌아오다가 왕강(王剛)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친구였는데, 혼자 탁자 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찬도 전혀 없이 귤 두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서둘러 삼퇴를

배낭을 메고 길 북쪽으로 걸어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캉(난방용 침상)에 노부인 한 분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르며 진상 자료 한 권을 건넸고,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안 들린다고 했고, 저는 다시 큰 소리로 두 번 더 알려줬습니다. 그제야 들은 할머니는 기뻐하며 90세가 넘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밖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바로 방금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오더니 진상 자료를 단숨에 낚아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공안국에서 지금 너희를 잡고 있는데, 감히 대낮에 이걸 배포해? 너 어디 소속이야? 향(鄕) 정부에 가서 배포할 배짱 있어? 널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보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서둘러 진상 자료를 주워 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돼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는 좋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법은 바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파룬궁은 박해받고 있습니다. 선악에 응보가 따르는 것은 천리이니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며 밖으로 걸어 나가자, 그는 더 이상 강경하게 나오지 않고 태도가 누그러져 제 뒤를 따라오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할머니 참!" 저는 제가 이성적인 정념으로 계속 진상을 알리며 악행을 막았기에, 사부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셔서 사람들이 감히 저를 건드리지 못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계속 위쪽으로 집집마다 배포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대문에 걸어두고 사람이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 직접 손에





이 모든 갈등 이면에 있는 진짜 원인을 똑똑히 보게 되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수련 파트너'가 너무 고생하신 거였습니다! 제 집착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프게 맞았으면 집착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았으면 다시 주워 담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원만으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 자아의 모든 관념과 집착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곧 제가 원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이 곧 제가 바라는 것이라면, 가정생활의 조화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낡은 구두가 편해서 바꾸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가 구두를 가져가서 잘 수선해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글의 참뜻을 왜곡하고 떠도는 말을 믿으실 때, 만약 제가 선의로 천천히 소통할 수 있다면 말씀드리고, 소통할 수 없다면 웃어넘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가져다줄 뿐,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대법 수련자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플라스틱은 다 독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어머니가 드시는 요구르트를 포함해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플라스틱이 아닌 것으로 바꾸면 됐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오히려 어머니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고, 지금은 플라스틱병에 든 요구르트를 계속 드십니다. 어머니는 비록 예전 관념대로 생활하고 계시지만, 인터넷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 좀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몇 번 속으신 후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신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오늘은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하더니 내일은 적게 먹으

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서로 엇갈리는 각종 정보에 어머니도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모든 생활 지침에 대해 제가 이의 없이 실행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때,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제게 향했던 적대감이 바뀌었고, 제 신앙 선택에 대한 이의가 바뀌었으며, 저를 보며 자주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소통을 거쳐 대법 진상과 악당의 대법 모함 거짓말에 대해 어머니는 마침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동시에 사실 앞에서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제가 계속 수련하는 것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때때로 제게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가서 네 일 봐라”, “가서 책 봐라”, “일찍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혹은 “안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둘은 이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을 푼 이후, 저도 제 선하지 못함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저는 대법에 매우 확고해서 대법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제 ‘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상대방을 대법의 반대편으로 밀어낸 것은 바로 제 불선(不善), 불인(不忍)이었는데도, 저는 늘 자신이 시종 위대하고 광명정대하며 정확하다고만 여겼습니다.

법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저는 진정으로 마음을 써서 법을 배울 수 있게 됐고, 자아의 시각이 아닌 법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보기 시작했으며,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출발점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생의 모든 행위가 사부님의 가장 자비로우신 안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가졌던 갖가지 불만과 원망, 심지어 모든





이 있음을 알기에 혼자 구원되는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하고 대법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올해 설 기간, 현(縣)의 수련생이 제게 진상 자료 100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 읽어보았고 내용이 매우 훌륭하다고 느꼈는데,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해 평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생명을 구하는 천기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사람의 틀을 벗어나 자아를 돌파하고 사람 마음을 내려놓아 대면해 사람을 구하기로 결심하며,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구했습니다.

장날이 되자 남편은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마친 후 먼저 발정념을 시작해 안팎의 교란을 제거했습니다. 발정념을 마치고 사부님께 향을 올리며 제자의 정념정행을 가지해주시고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어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8시가 되자 저는 진상 자료를 챙겨 스쿠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발정념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생이 대법 진상 자료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교란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해체한다.’ 그 후 법을 외웠는데, ‘홍음(洪吟)’의 ‘법을 돕다(助法)’, ‘정신(正神)’, ‘정념정행(正念正行)’, ‘가로막지 못하리(無阻)’를 장터에 도착할 때까지 외웠습니다.

저는 스쿠터를 길 남쪽의 어느 집 문 앞에 세웠는데, 문 앞에 4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집 아들이며 노인을 돌보러 온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 다소 우려하는 마음이 들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공공장은 바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강철을 제련하는 곳)." 그러고 나서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제게 많은 말을 했는데, 대략적인 의미는 제 스스로 걸어 나가야 하며 강인해야(剛)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꿈에서 깼고, 때는 마침 새벽 3시 아침 연공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이 꿈을 빌려 날 일깨워주신 것이 아닌가? 강인함이 있어야만 이 문을 나설 수 있고, 사람에서 벗어나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구나.'

저는 자신이 아직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안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대법제자가 잘해야 할 세 가지 일 중에서 저는 법공부와 발정념 두 가지만 했고,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은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일은 제한적이라 친인척에게만 전했을 뿐, 중생에게 책임지려는 마음이 부족했고 정념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대법수련은 엄숙한 것이다'라는 글에서 "매 한 사람이 정법시기 대법제자 속으로 걸어 들어올 때, 그 명백한 일면이 모두 신에게 맹세하고 서약했으며, 생명으로 대법제자가 응당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겠다고 보증했기 때문에, 이 때부터 생명은 다시는 삼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수련은 엄숙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법을 얻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진정 '장차 생명으로 법을 실증하리라'라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법을 통해 지금이 우주 천체 정법시기이자 멸(滅)의 마지막 단계이며, 도덕이 이미 타락했고 중생이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법제자로서 저는 세상에 온 것에 책임과 사명





잘못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던 생각이 정말 불합격한 수련생의 모습이었음을 깊이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시 어머니의 이른바 잘못을 보니, 더 이상 모두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 3. 모두 나의 잘못

법공부하고 법공부하며, 마음을 써서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아래의 법 내용을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수련인의 방식과 수련인의 사상을 이용하여 문제를 사고해야 하며 절대로 속인의 사상으로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부딪힌 어떠한 문제도 모두 간단하고도 간단한 것이 아니고,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며, 모두 속인 중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련과 관계있고 당신의 제고와 관계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 생명의 길은 개변된 것이고 당신 수련의 길은 새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갈래의 길에서는 곧 우연한 일이 없다. 그러나 표현됨은 오히려 반드시 우연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 미혹 중에, 속인과 똑같은 상태 하에서만, 비로소 당신이 수련하고 있는지 아닌지, 당신이 수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당신이 이 하나의 고비 또 하나의 고비를 걸어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수련이며 이것이 바로 정오(正悟)이다!"(로스앤젤레스시법회 설법)

제가 오래 지속된 이전 상태에서 돌파해 나온 것은 끊임없는 법공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법, 우주 대법만이 제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어 원망이 사랑과 선의로 대체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설법을 다시 배우면서, 제가 수련의 길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부님께서 진작 일깨워 주셨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옛이야기를 하나 하자. 『봉신연의(封神演義)』 중의 신공표(申公豹)가 강자아(姜子牙)를 보니, 늙고 또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원시천존(元始天尊)은 강자아에게 봉신(封神)하게 했다. 신공표의 마음속은 곧 평형을 이루지 못했다. ‘어째서 그에게 봉신하게 하는가? 당신은 나 신공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내 머리는 베어도 다시 돌아와 붙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봉신하게 하지 않는가?’ 그는 몹시 질투하여 늘 강자아를 교란했다.”(전법륜)

‘늙고 능력도 없었다’는 이 몇 글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바로 어머니가 늙고 능력이 없으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신공표와 똑같은 질투심에, 신공표보다도 못해서 어머니가 추하다고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늙고 능력이 없으심과 추함으로 제 몸의 질투심과 색욕심을 비춰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계속 늙고 추하고 능력이 없으실 텐데, 이게 진정으로 남을 해치고 저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추하고 우아하지 못하시며 깨끗하지 않으시다고 싫어한 것에는 깊은 색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아하고 추한 것은 싫어하니, 이것이야말로 철두철미한 호색(好色)이 아니겠습니까? 우아함은 과시심으로 지탱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탱됩니다. 과시에다 명(名)을 구하는 것이 더해진 이토록 무서운 집착이었습니다. 깨끗한 것





## 마침내 대면하여 사람 구하는 한 걸음을 내딛다

글/ 랴오닝 대법제자 위신(宇新)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의 여성 대법제자입니다. 올해 65세이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됐으며 온 몸이 가볍고 병이 없습니다. 수련의 길을 돌아보면 저는 오직 진실하게 수련하고 선(善)을 향하려는 마음뿐이었고, 자비롭고 위대한 사부님께서 제 곁에 계시며 시시각각 저를 보호하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난겨울 어느 날 밤, 저는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고개를 넘어 집으로 가려다 목재 가공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느 길로 가든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보일러 옆까지 가게 됐고, 한 남자가 보일러 주변에서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누군가 제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당신 친척이니,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살펴보니 정말 친척이었고, 안심이 돼 다가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문을 못 찾겠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커다란 기계 앞으로 데려가더니, 가지런히 늘어선 흰 강철 파이프를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만 하면 곧바로 우리에게 알려줬고, 혹은 차를 몰고 집에 와서 우리와 대법서적을 바로 싣고 옮기며 우리와 대법서적을 보호했습니다.

사악이 대법제자를 미친 듯이 박해할 때 우리는 여러 차례 사악의 괴롭힘과 박해를 피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집 법공부 팀도 교란을 받지 않았고 수련생들은 우리집에 올 때마다 안전하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딸은 현지의 한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합니다. 딸은 대법 수련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대법을 매우 믿으며 자신의 아이에게도 자주 가르쳤습니다. “파룬궁 수련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해야 해. 그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야. 파룬궁이 안 좋다는 말은 믿으면 안 돼.”

1999년 7월 중공이 대법을 박해한 후 딸은 우리집에서 사부님 법상을 모셔다가 딸의 집에 두고 지금까지 줄곧 공양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딸은 사부님께 향을 올리고 과일을 공양합니다. 딸도 복을 받아 직장에서 상사들의 중시를 받고 동료들과 아주 잘 지냅니다. ‘책임 간호사 직급’으로 승진할 때 시험에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몇 년 전 딸이 병원에서 한 환자를 간호할 때 그 환자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선량하고 사람을 이토록 잘 대하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네. 집에 큰 부처님 한 분이 온 가족을 보호하고 있구먼.”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을 좋아한다고요? 깨끗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똥구덩이에서 깨끗함을 말할 게 무엇이 있고, 우아함을 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토록 무서운 사람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제아무리 우아하게 자신을 치장한다 해도 극도로 추악한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성급하심과 단순하고 난폭하심은 모두 아주 정확하게 제 모습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일을 급하게 처리하고 속도만 따질 뿐 질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생구도를 포함한 많은 일을 할 때 몹시 조급했고, 일을 하기 전 생각과 계획이 부족했으며, 무모함으로 인해 박해를 초래했습니다. 일하는 것을 수련으로 삼고, 구한 사람 수와 일의 크기로 공로를 가늠했으며, 마음이 이미 더할 나위 없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제 집착도 라면과 맥도날드를 통해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미덕입니다. 비소로 변한 여주와 세균이 있는 생수병의 등장은 도덕이 무너진 현시대에 악덕 상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불량 멀티탭이나 온수기 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보신 사례들은 모두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실 것을 요구하면서, 저 자신은 왜 여러 의견을 듣고 밝게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스스로 일을 할 때 왜 몇 번 더 이유를 묻지 않을까요? 제가 진선인의 잣대로 영원히 남만 재려 한다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제 호의의 선물을 거절하신 것은, 제가 저와 어머니 사이에 원망을 가득 채워 놓아 어머니가 어떤 선의나 사랑도 느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이 주는 물건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받기를 거부하시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다 제 잘못이었고, 대법 수련인으로서 수련에 빈틈이 생겼기에 속인이 각종 방식으로 제게 고치라고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빈틈이 많은데도 스스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화를 내며 제 빈틈을 지적해 주시는 분과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대면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떤 분명한 단점이나 잘못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제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니 즉시 자신을 잘 찾아봐야 하고, 분명 같은 문제가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련 파트너'가 저에게 던진 공이 결코 아무렇게나 던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 어느 한 측면의 부족함을 부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즉 거울 속 제 얼굴이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거울을 닦아봐야 소용이 없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안으로 찾는 법보(法寶)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저희에게 안으로 찾으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수련 초기 저는 이것이 갈등을 푸는 방법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곧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 잘못된 점이 있을 테니 먼저 자신을 고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써서 법공부를 하고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저는 다른 층차의 법리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안으로 찾는다는 것은, 제가 본 진선인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표현을 누가 한 것이든 확실하고 온전하게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그녀' 또는 '그'를 '저'로 바꾸면





않게 됐어요. 이 좋은 분께 감사드릴 기회를 줄곧 찾고 있었는데 오늘 만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대법 사부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좋은 사람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게 하시기에 우리는 매일 나와 사람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좋기만 하다면 됩니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우리 대법제자의 책임이고 우리 사명입니다. 정법이 하루라도 끝나지 않는 한 저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나가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 6. 불광(佛光)이 우리집을 널리 비추다

제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심신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족들이 다 보았고 모두 진심으로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대법에 감사드렸습니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일에서 가족들은 모두 저를 지지해 줍니다. 제가 바빠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저를 도와 함께 하며 저를 원망하거나 탓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유전 시추 회사에 배정받아 일했습니다. 1년간의 수습 기간 아들은 일을 뛰어나게 잘해 상사들에게 매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 공정 기술원을 맡았고 이후 일선 팀장, 과장급 간부를 거쳐 지금은 회사 관리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출근 후 제가 매일 바쁜 것을 보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 저와 함께 나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붙였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간부라서 중공 악당 조직에 대법제자를 박해하려는 정보가 있기

어느 겨울 저녁, 저와 남편은 진상 스티커를 붙이러 나갔다가 길가에 광고벽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스티커를 붙이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그 광고벽으로 곧장 달려갔는데 발밑이 어떤지도 보지 못하고 두 발을 헛디뎌 '쿵' 소리와 함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두 발이 빨갛게 달군 철판을 밟은 것 같았고 저는 당시 "아얏" 소리를 내며 '휙' 하고 뛰어올라왔습니다. 남편이 급히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안 다쳤어요." 구덩이를 들여다보니 난방 밸브가 있는 시설이었고 난방 파이프에서 '칙칙'하며 물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속에 몇 분만 있었다면 피부에 분명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저도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서 단숨에 솟구쳐 올라왔는지 몰랐고 우리 모두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났으며 두 손을 모으고 거듭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우리는 진상 스티커를 붙인 후 다른 곳으로 붙이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을 때 바지가 꽁꽁 얼어붙어 벗기도 힘들었지만 우리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진상을 아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외출해 버스에 막 탔는데 누군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여기 와서 앉으세요." 제가 그녀 앞자리에 앉자 그녀는 제게 사오빙(燒餅, 구운 빵) 하나를 건네며 먹으라고 해서 저는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아서 절 잊으셨을지도 몰라요. 작년에 아침 시장에서 제게 진상을 알려주시고 삼퇴를 해주셨잖아요. 그 후로 제 몸이 갈수록 좋아지고 생각도 우울하지





상대방이 연기한 모든 '저'가 바로 제가 수련해 버려야 할 집착이며, 제 눈에 보이는 상대방이 바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저라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제게 계속해서 연기해 보여주었지만, 제 심성이 도달하지 못하고 마음을 바르게 놓지 못했으며 그 안에 각종 사람 마음과 집착이 가득 찼기에 수년간이나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년간 제가 어머니를 대했던 것은 완전히 선함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울림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냉담과 불만, 무시와 원망으로 저와 어머니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는 진선인을 전혀 느끼실 수 없었으니, 이런 어울림 속에서 어머니가 대법제자의 좋음을 인정하실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게다가 저와 중생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저 자신의 자아에 대한 강렬한 집착, 강렬한 통제욕, 제 의견을 표현하려는 의향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일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돈과 힘을 들이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생이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박탈했고, 제 강렬한 자아표현으로 상대방의 자아표현을 억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私)는 참으로 너무나 뿌리 깊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튀어나와 연기를 하려 합니다. 자신을 잘 수련하려면 자아에 대한 모든 보호, 모든 보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우호, 이해, 포용으로 어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사실 아주 사랑스러우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제가 배워야 할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토록 부지런하시어 젊은 사람들과 일을 다투어 하시고, 자신에게는 몹시 검소하시면서 가족에게는 씀씀이가 크시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심이 매우 강해 무슨 신조어든 한 번씩 배워보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독선적이고, 얕은 학식과 사람의 관념으로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막아내며, 그 시시각각 자아가 도전받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질의받지 않도록 수호하는 생명, 그 겸손하지 않고 입만 열면 결론을 내리는 저는, 오직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만을 지표로 삼아 따르는 어머니와 아무런 차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단정하지 않으시고, 우아하지 않으시며, 꾀죄죄하게 일하시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신다고 싫어했지만, 독벌레와도 같은 제 사람의 욕망과 집착에 비하면 제 집착이 더 더러웠습니다. 제 집착의 걸레로 남의 불결함을 닦아내려 시도할 때, 진정 제 손에 있는 그 걸레가 더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저의 '수련 파트너'에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고령의 연세에, 청력이 좋지 않은 상태로, 현대 인터넷 관념의 충격을 받는 등등의 도구로 자신을 무장하시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날이면 날마다 제 각종 집착을 연기해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수동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분명 어머니가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의 가장 용감한 선택이셨을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내려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각종 표현으로 저를 일깨워 저를 성취시켜 주시는 동시에, 이 역할은 또 늙고 추하고 꾀죄죄하게 변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 대법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저와의 지극히 깊은 인연과 믿음이 없었다면 누가 감히, 누가 또 기꺼이 이 역할을 맡으려 했겠습니까?





니다. 사악이 아파트 단지를 봉쇄하면 우리는 담을 넘어 나갔는데 1m가 넘는 담을 단숨에 훌쩍 넘었으며 전혀 60~70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중에 갖가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번은 도로가에서 40대 남성을 만났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당원인가요?" 그가 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날 따라와요. 어디 좀 데려갈게요." 저는 그가 사복 경찰임을 알아차렸고 빨리 그를 따돌려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그와 대화를 나누며 어떤 일을 상의했고 저는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하는 틈을 타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놀라기만 했을 뿐 무사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경찰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번은 아침 시장에서 경찰복을 입은 한 경찰을 만났는데 인상이 아주 선해 보여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채소 좀 사러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안전을 지키시느라 정말 바쁘시겠어요. 당신이 선량해 보이니 진언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큰 재난이 올 때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더 말하지 말라는 눈치를 주며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직장 사람인데 바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보답을 받아야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삼퇴하세요. 가족과 아이에게도 좋습니다." 그는 제가 매우 진실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저 대신 탈퇴시켜 주세요." 저는 그에게 가명을 지어 주고 삼퇴를 해줬습니다.

이 당신에게 뭐 물어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뭐고 누구 집에 놀러 갔냐고 묻길래 내가 아무 이름이나 대며 샤오류(小六)의 집이라고 했지." 저는 듣고 제 대답과 똑같아서 저도 샤오류 집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며 사부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번은 저와 남편이 밤에 한 마을에 자료를 배포하러 갔습니다. 마을 안은 불빛이 환했고 거리 양옆의 가로등이 모두 켜져 대낮과 같아 각 집에 진상 자료를 배포하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청했습니다. '사부님 저희를 비추는 이 불빛들을 다 꺼지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불빛이 어두워져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막 이 일념을 내보내자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걷던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가로등이 왜 깜빡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하세요!" 저와 남편은 몸에 지니고 온 진상 자료를 순조롭게 다 배포하고 시내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전에 나가서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오후에는 법공부를 하는 것을 견지했는데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줄곧 지금까지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시내의 큰길과 골목, 크고 작은 아침 시장과 상가, 마트를 빠짐없이 다녔으며 때로는 반나절에 3~5명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20~30명에게 탈퇴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유행 기간에도 중단하지 않았습





제가 진정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자애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 명의 늙은 아이처럼 대하고, 어머니의 부족함을 포용하며 묵묵히 어머니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드리고, 어머니의 매번의 진보를 칭찬해 드렸을 때 어머니는 정말 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머리를 다듬게 하셨고, 주방세제를 사용해 설거지하셨으며, 플라스틱병 생수를 사 주셨고, 어머니는 심지어 모습까지 사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아! 원래 이전의 어머니는 모두 연기를 하신 거였고 가짜 어머니셨지만, 바로 진짜 저였던 것입니다! 제가 진실함으로 회귀하고 진정으로 진선인으로 제 진아(眞我)를 요구했을 때, 그 사랑스러운 진짜 어머니도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자아에 빠졌을 때, 구세력의 대본대로 제 고집대로 행동할 때, 제가 어찌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겠으며 또 어찌 진상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제 소행을 생각해보니 정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으로 찾는 아름다움은, 가시 돋친 장미 덤불 속의 그 가시들이 모두 자신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보호하고 저를 지키는 모든 사람 마음을 버렸을 때 주위에는 장미만 있고 가시가 없으며, 이때 주위 중생들도 비로소 저와 함께 진선인의 아름다움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무엇이 진정한 자비인지 제자들에게 줄곧 알려주셨고, 모든 중생을 선의와 사랑으로 대하셨으며, 중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부님의 제자로서 저는 자비심을 잘 닦아내야 합니다.

1999년 '7·20' 이후, 저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 진상을 알리는 항목을 했고, 법도 매일 배웠으며 정념을 발하는 것도 잊지 않고

해서 자신이 정진하는 제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완전히 소홀히 했습니다. 수련을 잘하고 못하고는 일상생활의 일언일행, 일사일념 속에 완전히 진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일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해도 마음속에 자아가 가득하다면 곧 가짜 수련이고 사부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서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 수련이 늘 외적인 힘에 의존해 '수련 파트너'가 저 자신을 잘 닦아주기를 바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부터 엄격하게 자신에게 요구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부터 수련 상태에 들어가, 시시각각 언행을 삼가고 내면의 그 이타의 씨앗을 잘 보살피며, 안에서부터 밖으로 자신을 철저히 진선인 대법에 동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제 '수련 파트너'가 사부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련 파트너'의 연기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연기에서 제 부족함을 잘 찾아, 언젠가 천국에서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잘 실현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기가 모두 끝나는 날이 있고, 그날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크게 기뻐할지 아니면 전부 잃게 될지는 정말 제 오성 안에, 제 수련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반드시 대법을 잘 수련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저는 주말과 저녁 식사 후 밖으로 나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붙였는데 며칠을 배포해도 다 배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수련생)은 그때 이미 퇴직해 집에 있었는데 그도 스스로 저를 도왔고 우리 온 가족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아서 저를 태우고 꽤 먼 교외나 시골로 가서 배포했습니다. 도로 양측의 가드레일, 나무, 전봇대는 모두 진상 자료를 거는 좋은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해 한 명이 당기고 한 명이 팽팽하게 펴며 한 번 나가면 많이 할 수 있었고 때로는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수련생들은 점차 이성적으로 걸어 나와 진상을 알리고 세인을 구했고 저희 현지에도 자료점이 생겨 스스로 진상 소책자, 스티커, 현수막, 세로 현수막, 진상 지폐, 탁상달력, 벽걸이 달력 등을 제작했으며 모두가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반대하며 세인을 구하는 정법수련에 들어섰습니다.

한번은 저와 남편이 농촌에서 진상 자료를 다 배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우리 부부는 보통 저녁 7~8시에 가서 밤 11~12시에 돌아옵니다.) 마을을 벗어나 막 도로에 들어섰을 때 경찰에게 가로막혔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 다녀오는 길이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친척 집에 다녀왔소." 경찰은 우리를 떼어놓고 심문했지만 우리는 속으로 아주 태연했고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뭐요? 친척 이름은 뭐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을 열어 대답했고 경찰은 제가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심문을 마치고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경찰

겪었는데 한 가지 난만 빠져도 안 돼.” 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보증서까지 다 써놓고 무슨 부처가 되겠다는 거야?” 저는 단번에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부님께서 날 일깨워주신 게 아닌가? 보증서는 남편이 썼지만 내가 반대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묵인했으니 내가 쓴 것과 같지 않은가? 그건 절대 안 된다.’

저는 급히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그 ‘보증서’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파출소장이었던 그 경찰이 급히 저를 막았고 남편도 저를 붙잡으며 소장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면서 저를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버려!” 저는 사악에게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문 두드리기 작전’, ‘제로화 작전’ 등에서도 그들은 저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쩌민을 고소할 때도 실명과 실제 신분증 번호를 사용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지만 그 후에도 우리집에 와서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5.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다

중공이 대법을 박해한 후 우리는 단체 법공부, 연공 환경을 잃었고 수련은 개인 수련에서 정법 수련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저희 지역의 진상 자료는 모두 외지(주로 성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진상 현수막, 스티커, 소책자가 가득 든 큰 상자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렵다. 어려워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 기왕 우리집에 보내졌으니 내가 해야 한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 누명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닦아 없애다

글/ 베이징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상대방은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걸까?’ 결국에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남아 저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대법을 수련한 이후 저는 정말 바뀌었고 어느새 누명을 썼을 때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그해 여름방학, 시어머니와 두 달 동안 서먹하게 지내다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천 리 밖 고향에서 달려와 저를 돌봐주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아직 수련하지 않았고 나이도 어렸으며 학업도 비교적 순조로웠기에 스스로 아주 우수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관념상 많은 충돌이 생겼고 시어머니의 많은 부분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가 수련생이셨고 어릴 적부터 받은 가정교육에서도 효도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방학, 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몇 달이나 돌보시느라 꽤 고생하셨으니 마침 여름방학이라 제가 친정에 갈 수

있고 시어머니도 고향에 돌아가 푹 쉬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게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아주 기뻐하시며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제가 괜찮은 며느리이며 남을 배려할 줄 안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금세 변하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를 내쫓으려는 거냐?”

저는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 인생 사전에 어르신을 내쫓는다는 페이지는 없었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제가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푹 쉬셨으면 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이 일을 들먹이며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에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 일을 되뇌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 자신의 시어머니가 큰며느리 집에서 지냈는데 큰며느리가 낡은 이불을 덮게 하자 시어머니가 뒤돌아 가버리시고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인즉슨 시어머니 자신이 지금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떠나지 않았으니 이미 아주 잘 참은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불쾌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저희도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불쾌해하는 것을 보시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시어머니는 또 고향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호소하셨습니다. 이후 시아버지의 전화도 걸려 와서 제게 무슨 일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또 시아버지에게 해명했습니다.





녀들은 멀리서부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 언니!” 제가 외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녀들은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아는 사이인 것을 알아채고 우리를 함께 한 방에 가두고 어디서 왔는지 심문하며 조서를 꾸몄습니다.

곧 우리는 현지 경찰에게 현지로 보내졌고 바로 시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구치소에서 저는 굳건히 가부좌하고 ‘논어’를 외웠습니다. 경찰은 제게 ‘보증서’를 쓰고 서명하라고 했지만 저는 끝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4일 동안 불법 감금됐습니다. 14일 후 집에서 사람이 와서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거리 파출소 경찰이 찾아와 저를 파출소로 데려가 연공하지 않고 베이징에 가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강요했지만 저는 절대 쓰지 않고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안 쓰면 집에 갈 생각 마.”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보증하라면 저는 오직 우리 사부님을 믿는 것만 보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제 가족을 찾아와 저를 설득하게 했지만 저는 가족의 말도 듣지 않고 무조건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지 않자 경찰은 저를 집에 보내지 않고 가족에게 밥을 가져오게 하며 저를 설득하게 했습니다. 저는 3일 연속으로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증서를 하나 써. 당신 아내가 베이징에 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겠다고 보증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지켜봐.” 남편은 보증서를 썼고 그렇게 해서야 저를 집에 보내줬습니다.

파출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비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부처가 되려 해? 당승(삼장법사)은 99 81난을

나와보니 많은 수련생이 경찰에게 끌려 버스에 실려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스 한 대가 가면 또 한 대가 왔는데 수련생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곁에 두 명의 수련생이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할 것을 작게 상의하고 있기에 저는 그들과 일행이 돼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6시 기차를 탔고 기차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옌볜(延邊) 수련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6시가 넘었습니다. 베이징역에서 나와 우리는 곧장 천안문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대법제자들로 가득했는데 가부좌를 하는 사람, 동공(動功)을 연마하는 사람, 현수막을 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수막을 꺼내 두 손으로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이런 방식으로 법을 실증했습니다. 이때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사복 경찰과 경찰이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제자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그들이 날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을 따라 천안문 광장을 빠져나와 차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 1월 1일 저는 한 수련생과 함께 현지에서 택시를 타고 창춘(長春)으로 가서 기차표를 샀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 넘어 베이징에 도착해 우리는 바로 천안문 광장으로 갔습니다. 광장에는 많은 수련생이 그곳에서 연공하고 있었고 우리도 모두와 함께 연공을 했으며 연공을 마친 후 다시 현지로 돌아왔습니다.

2001년 2월 저는 혼자 창춘 기차역에 가서 기차표 두 장을 샀는데 한 장은 베이징행이었고 한 장은 현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현지 수련생 두 명을 만났는데 그





이 기간에 저는 거듭 해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 분노는 점점 커졌고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하며 호소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집과 살림을 내버려 두고 멀리서 와서 너를 돌보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 더 이상 따지지 말거라." 이 말을 들은 이후 저는 비록 시어머니와 더 이상 다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채 계속 답답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와 시어머니는 여름방학 내내 아무도 고향에 가지 않았고 이렇게 서먹하게 두 달을 보냈습니다.

## 몇 번의 풍파 속에서 대법 안에서 승화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산후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마음속에 울화가 맺혀있을 때 저는 대법 수련에 들어섰습니다. 막 수련을 시작했을 때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관계를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이 억울했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없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저를 생각하셨을까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수련하면서 제가 대법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됐을 때,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 얹혀살아 성격이 예민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한 것은 시어머니를 내쫓으려는 뜻이 아니었고 상황이 시어머니가 생각하신 것과 달랐으며 사실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슬픔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내려놓게 됐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10살이 다 되어 가고 저도 시어머니와 7~8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수련했기에 시어머니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고 시어머니를 아주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아주 잘 대해 주셨고 저를 친딸처럼 여기시며 많은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고향에 계실 때 약간의 우울한 감정이 있었고 일이나 생활 속에서 늘 조심스러워하셨으며 항상 상사가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불만이 있으며 시아버지도 자신에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었지만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몰라 때로는 행인에게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시고 저는 시어머니와 이야기 동무가 되어 드렸으며 시어머니에게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저는 대법의 법리로 일깨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서히 그 당시의 맺힌 감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를 도와 밥을 하시고 집안일을 정리하셔서 꽤 고생하시지만 늘 즐거워하시고 용모도 줄곧 아주 젊으십니다. 예전 동료들이 시어머니를 보면 모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젊어요? 아들 집에 가서 일 안 했죠?” 저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무슨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제가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저녁이 되어 지갑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지갑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보고 찾아봐도 모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지갑 안에 많은 중요한 신분증과 열쇠가 들어 있어서 잃어버리면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모르고 화를 냈네.” 모두가 멍하니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알았고 파룬궁이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 제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정말로 좋게 변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칭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부님께 감사드렸고 사부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직장인데 이 일을 듣고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 4. 세 차례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하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은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 수련으로 심신에 이로움을 얻은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일념이 생겼습니다. ‘사부님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고 사부님의 결백을 밝혀야겠다.’ 1999년 ‘7·20’ 그날 저희 지역의 수많은 수련생이 잇달아 성도(省都)로 향했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성 정부 청원사무실 근처까지 갔는데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 거리 옆에는 대법제자들이 가득 서 있었고 많은 경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청원하러 온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제자를 가지(加持)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 경찰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생각하며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원사무실 문 앞에 도착해 보니 방 안에 사람이 가득 차서 아예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련생들은 저마다 대법의 실제 상황을 알리고 있었고 저는 당시 “사부님은 결백하십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그곳에 잠시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모두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알았고 저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파룬궁이 좋다고 말하며 동료들에게 파룬궁 수련이 병을 없애고 몸을 튼튼히 하는 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러 동료가 제 소개로 파룬궁을 수련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저의 변화를 보고 연공장에 가서 연공했습니다.

### 3.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다

저는 직장 식당에서 일합니다. 어느 날 점심 배식 시간에 저와 남녀 동료 두 명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평소 아주 잘 지냈고 못 할 말이 없었으며 일할 때도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수다를 떨며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여자 동료가 자기 남편을 남자답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욕하길래 저는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옆에 있던 남자 동료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말하는 줄 알고 곧장 제게 달려오더니 손에 잡히는 대로 접시 더미를 제게 던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접시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했고 밥 먹던 사람들도 놀라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며 큰 싸움이 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화를 내거나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나쁜 성격을 억누르고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남자 동료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제가 화나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남자 동료는 제 모습을 보고 단번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장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동생. 내가 미안해. 방금 나도 어디서 그런 화가 치밀었는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저는 천천히 회상해 보았지만 밖에서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지갑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것인지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학원에 데려다줄 때 지갑 가지고 나갔어?” 딸은 제 기억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가져갔어요, 장도 봤잖아요.” 저는 순간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밖에서 잃어버렸으면 안 되는데.’ 딸은 제가 이렇게 조급해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볼게요.” 평소에 딸이 무언가를 찾지 못할 때면 모두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았고 보통 할머니가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묻지 마, 할머니가 어떻게 아시겠어.”

결국 제가 아이를 따라잡지 못했고 아이는 이미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얼른 가서 상황을 수습하며 해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냉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지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니?” 잠시 후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침대 위를 한번 봐라.” 저는 서둘러 달려가 침대 위를 뒤적여 보았는데 알고 보니 지갑이 개어 놓은 옷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찾은 후 아주 기뻐하며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잠시 후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방에서 나오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이를 시켜 나에게 물어보게 한 것은 내가 네 지갑을 가져갔다는 뜻이냐?” 저는 멈칫하며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직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다들 너에게 불만을 품게 될 거다.” 저는 서둘러 맞장

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네, 네,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제가 아이를 시킨 것도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달려가 물어본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이를 부른 게 아니면 아이가 알아서 물어보러 왔겠느냐?” 남편이 이때 일어나 앉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냥 지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일순간 화가 더 커져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는 왜 너한테는 묻지 않았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물어봤죠, 제가 대꾸하기 귀찮아서 그랬죠.” 저는 옆에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깊은숨을 내쉬며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 예전에 자신의 시어머니가 작은며느리 집에서 지내실 때 돈을 잃어버렸는데 작은며느리가 가져갔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며느리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느껴 아주 화를 내며 한밤중에 온 집안의 큰아주버니, 둘째 아주버니, 고모 등등을 모두 불러 모았고 온 가족이 돕게 하여 결국 시어머니 자신의 침대 틈에서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며느리는 이 일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시어머니와 얼굴을 붉힌 적이 없고 줄곧 잘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말인즉슨 이 일이 아주 심각하고 제가 잘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저를 얕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냈는데 집에서 화를 내면 가족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제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이치에 맞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았고 상사들도 감히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련한 지 보름도 채 안 된 어느 날 연공장에서 연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머리가 없는 하얀 여우 같은 괴물이 우리집 계단 입구를 가로막고 제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것은 큰 꼬리로 저를 쳤고 저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리훙쯔 사부님!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사부님을 부르자 그 괴물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괴물이 또 우리집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서 저는 또 급히 외쳤습니다. “리훙쯔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그 괴물은 작은 불덩이로 변해 쓰레기 투입구를 따라 도망쳤습니다. 저는 급히 사부님 법상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함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저는 몸을 돌려 침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큰 소리로 ‘논어(論語)’를 읽기 시작했고 방 안은 온통 평온하고 상서로웠습니다.

이후 다시는 어떤 저급한 영체의 부체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았고 제 담력도 커져 혼자 집에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에 단체 법공부를 마치고 혼자 밤길을 걸어 집에 돌아와도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도 바뀌었고 말투도 부드러워져 상사들은 제가 딴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쉽게 몸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이런 것들을 쉽게 불러들였습니다. 일단 들러붙으면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고 몸서리치며 소리 지르고 울면서 끝없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 펄쩍펄쩍 뛰며 종이를 태우고 주문을 외워 사악한 영체를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려보내고 나면 저는 온몸이 며칠 동안 몹시 괴로웠는데 큰 병을 앓는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결혼 후 어느 날 남편이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 집에 오던 중 시댁 묘지를 지나게 돼 먼저 묘지에 들러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절을 올린 뒤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고 떨리는 것을 느꼈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파랗게 질리더니 이내 의식을 잃고 기절했습니다.

남편은 급히 중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중의사는 제 맥을 짚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안 되겠네요. 맥이 잡히지 않아요. 부체일 수 있으니 빨리 무당을 찾아보세요.” 무당이 와서 굿을 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때쯤 저는 겨우 깨어났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보고서야 가족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에게 들으니 제가 하루 밤낮 동안 혼수상태였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으며 온 가족이 편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편에게 ‘보가선(保家仙)’을 모시라고 권하며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고 다시는 부체를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보가선’ 위패를 모셔 와서 공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양은 했지만 제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때로는 여전히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태가 줄곧 저를 괴롭혀 기진맥진하게 했고 가정을 불안하게 했으며 제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앞이나 직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들이





남편은 듣고 나서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꾸짖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가 거듭해서 말씀하시니 짜증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제가 일 처리를 잘 못했어요.” 저는 또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아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은 제 잘못이에요. 첫째는 저 스스로 물건을 잘 잃어버려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정에 있을 때도 지갑을 찾지 못하면 부모님께 여쭤보았고 엄마는 저를 도와 찾아주셨어요. 아빠는 찾지 않으시고 제게 몇 마디 꾸짖으시며 저처럼 계획이 없으면 인생의 3분의 1을 물건 찾는 데 낭비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지갑과 휴대폰을 따로 놓는 곳을 정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둘째, 제가 아이가 어머님을 찾을 때 막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고 어머니의 기분을 고려했어야 했어요. 셋째, 사실 이 지갑에는 지금 돈도 별로 없고 주로 카드와 열쇠를 잃어버릴까 걱정한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조금 풀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확실히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늘 물건을 잃어버리는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네, 제가 주의할게요.” 이때 아이도 이미 옆에서 저를 한참 동안 불렀고 이렇게 지체하는 바람에 아이가 학교에 지각할 뻔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도 훨씬 좋아지셨고 저는 얼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이 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틀이 지나 제가 밥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제게 치과에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제

가 밥을 해서 좀 남겨둘게요.” 치과 진료를 받고 오신 시어머니는 아주 조급해하시며 이 틀니는 두 달을 더 기다려야 끼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잇몸이 다 아물면 맞추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구나, 어쩌면 며칠 뒤에 내가 돌아갈지도 모른다(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 저는 그때 조금 멈칫했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고향에 돌아가신다는 걸까? 저는 그제야 지갑의 풍파가 아직 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 마음속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미 아이가 둘이고 남편과 저 모두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버리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비록 마음속으로 아주 편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줄곧 비교적 평온했고 내면에 큰 기복이 없었으며, 그저 시어머니가 진실한 상황을 이해하시면 화내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줄곧 제가 시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시어머니가 줄곧 제게 누명을 씌우신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이 어찌 이리 어려울까 싶었습니다. 저는 밥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내가 어디를 잘하지 못한 걸까? 나는 시어머니에게 아직 원망이 있는가? 내가 논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평온한 것인가, 아니면 체면이나 과시심이 있는 것인가?’ 저는 여전히 100% 원망이 없고 증오가 없으며 완전히 남을 위하는 것을 해내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저는 제 체면을





한 것은 아니며 병 치료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배우려 한다면 ‘전법륜’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다섯 가지 공법이 있는데 간단하고 배우기 쉬우며 병을 없애고 몸을 튼튼히 하는 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원은 제게 제1장 공법을 시연해 줬습니다. 그녀의 시연을 보며 저도 동작을 따라 몸을 쭉 펴고 이완했습니다. 그러자 강대한 에너지가 제 몸을 이끄는 것이 느껴졌고 무척 편안했으며 마음속으로 매우 기뻤습니다. 보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가부좌할 수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제게는 사부님이 계시게 됐고 저는 대법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끊임없이 법공부와 연공을 하면서 제 몸은 하루하루 좋아졌습니다. 짧은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부님께서 제 몸을 정화해 주셔서 병 없이 온몸이 가뿐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집 환경을 정화해 주시고 부체를 쫓아내 주셨으며 제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연공장에 가서 일찍 도착해 늦게 떠나며 연공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은 지금까지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집에도 법공부 팀이 생겼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우리집에 와서 법공부를 하고 교류했으며 팀 수련생들은 모두 비학비수(比學比修)하고 안으로 찾으며 심성을 수련하는 데 공을 들여 사부님의 진수(眞修) 제자가 됐습니다.

## 2. 사부님께서 제게 부체를 없애주시다

저는 철들 때부터 해가 지기만 하면 어머니가 저를 방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 몸이 허약해 저급한 영체를

체를 쉽게 불러들였습니다. 실제 병과 영체들이 함께 저를 괴롭혀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을 겪었고 절망 속에서 괴롭게 버텼습니다.

1996년 8월 어느 날 동료가 책 한 권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신기해요. 몸에 좋은 보물 같은 책이랍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배우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집에 가져가서 저녁에 읽어볼게요.”

저는 천목이 열려 있어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안일을 정리한 후 서둘러 가방에서 보물 같은 책 ‘전법륜(轉法輪)’을 꺼냈습니다. 책 표지의 파룬 그림이 단번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파룬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지? 회전하기까지 하네!’

저는 또 사부님의 법상을 봤는데 사부님께서 자애롭게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 내려가자 글자들이 날개라도 달린 듯 제 머릿속으로 날아들었고 저는 단숨에 ‘전법륜’을 다 읽었습니다. 책을 덮었을 때는 이미 이튿날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책을 읽었지만 조금도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이 맑고 상쾌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수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십이지장 궤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은 배가 부풀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에게 책을 읽은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근기가 정말 좋네요. 대법과 인연 있는 분이군요. 오늘 퇴근하면 제가 연공장으로 안내할게요.” 연공장에 도착하자 보도원이 제게 파룬궁을 더 자세히 소개해 주며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 대법입니다. 파룬궁은 병을 낫게 할 수는 있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





무릅쓰고 고개를 숙여 시어머니에게 다시 사과하며 더 진심으로 대하고 시어머니를 더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방을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일 처리가 서툴러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요. 하지만 저는 정말 나쁜 마음이 없었고 어머님을 가족으로 여겼기에 지갑을 물어본 것도 어머님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씀 없이 웃으시며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시어머니는 웃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성격이 곧고 말도 곧아서 그러니 너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시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곧은 건 좋은 일이에요. 불쾌한 일은 털어놓고 해결되면 좋은 거죠. 저는 괜찮아요. 사실 이번에 아이가 어머님께 가서 여쭤본 것도 아이 탓만 할 수 없고 아이도 좋은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이때 정말 깨달으셨고 환하게 웃으셨으며 그날 이후로 다시는 고향에 돌아간다는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며칠간의 파란을 겪은 후 이 일은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저는 지갑을 두는 바구니를 특별히 준비했고 다시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누명을 썼을 때 심성을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대법 안에서 정말 어느새 승화한 것입니다.

## 시아버지에게 누명을 쓴 후 나는 웃었다

또 한번은 시아버지에게 누명을 쓴 일입니다. 시아버지는 기가

아주 세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이 인정하는 일은 반드시 옳고 사실이라고 여기시며 남의 해명도 듣지 않으십니다. 한번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저와 시아버지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보통 외출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상을 알립니다. 그날 번호표를 기다릴 때 시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앉아 있었고 저는 따로 자리를 찾았는데 마침 옆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며 줄을 선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오래됐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이 병원 의사지만 그래도 새치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픈 아이가 너무 많고 할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자신의 뒤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염병 화제에 이어서 계속 말했고 나중에 그의 고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창춘(長春)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파룬궁이 바로 창춘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듣고 나서 그렇다며 그의 집과 리훙쯔 선생님 댁이 아주 가깝게 살았고 고등학교 동창 중 많은 사람이 수련했지만 자신은 수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역시 인연 있는 사람이라 그에게 좀 더 많이 알려주었고 삼퇴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그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아이와 말을 나누었기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주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갔을 때 네가 한 남자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마지막에 보니 그 남자가 널 안기까지 하더구나, 어찌나 화가 나던지!” 시아버지는 말씀하시면서 화가 나서 눈꼬리까지 치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순간 아연실색했





# 진상을 알리는 길에서 사존께서 보호해주시다

글/ 중국 지린성 대법제자 옥련(玉蓮)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29년이 됐습니다. 각종 고비와 시련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었습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개최를 맞아 제 수련 체득의 일부를 적어 사존께 한 부의 답안지를 제출하려 합니다.

## 1. 기쁘게 대법을 얻다

저는 올해 73세로 고향은 산둥성입니다. 1978년 남편을 따라 동북 지역으로 전근해 일했습니다. 남편은 시추 작업반에서 일하며 1년 내내 야외에서 근무했고 저는 집에서 두 아이를 돌봤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병이 도질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늘 딸이 아들과 함께 놀아줬습니다. 딸은 마치 작은 어른 같아서 저와 남편은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키 160cm에 체중은 41.5kg밖에 되지 않았고 십이지장 궤양, 심장병, 빈혈 등 여러 질병이 있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 가족들은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 봐 늘 구심환을 품고 다니게 했습니다. 제게는 또 부체(附體, 사람 몸에 붙는 동물, 귀신 등의 영체)가 있었는데 철들 때부터 저급한 영

수련 과정에서 호기심으로 신기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지름길을 가거나 높게 닦기를 추구하려는 생각도 없이, 그저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법공부(특히 법 외우기) 속에서 법리를 깨닫고, 착실히 수련하는 과정에서 심성을 제고하며 사람을 구하는 가운데 정념정행하고 승화 속에서 대법에 동화됐습니다. 고뇌를 지나고 갈등을 넘으며 고난을 이겨내는 매 한 걸음은 모두 사람에서 벗어나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법 수련이 사람에서 신으로 성취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공능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출현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실재하는 경지의 승화에 있습니다.

사람에서 신으로 성취되는 이 길을 멀리 걸어갈수록 마음속 대법에 대한 바른 믿음은 반석같이 확고해지고 앞에 펼쳐진 길이 더욱 또렷해지며, 사부님께서 '홍음2-대법도(大法徒)'에서 하신 "신의 길은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법 수련 과정에서 참여한 모든 기회, 했던 모든 일은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제고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제자가 수련하고 제고하는 매 한 걸음에는 모두 사부님의 거대한 감당과 헌신이 담겨 있으니 사부님에 대한 감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착실한 수련 과정에서 깨달은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글로 써 수련생과 교류하고자 하니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만약 제 예전 성격 같았으면 당장 상을 엎고 시아버지와 한바탕 따졌을 것이고 이 일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평온하게 시아버지에게 해명했습니다. 저는 당시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본 것이고 남성이 저를 안은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 그의 아이와 아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믿지 않으시고 또 다른 듣기 거북한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상을 알리는 일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보통 사람이고 중공 악당의 선전에 너무 깊이 중독돼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리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줄곧 진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함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시아버지에게 평온하게 해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웃고 말았습니다. 너무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설법하신 한 단락의 법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살인방화를 하려 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듣고 아주 재미있다고 할 것인데(사부님 웃으심), 이 말이 가당키나 한가? 웃고 지나가 버린다.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 마음이 없으므로 이 말이 당신을 움직일 수 없다."(2014년 샌프란시스코 법회 설법)

저는 시아버지의 성격을 알기에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아직 불만이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표면적인 참음을 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저도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

었습니다. '아직 색욕심이 제거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았다면 시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시지 않았을지도 몰라.'

지난 몇 년간 시부모님, 남편, 직장 상사에게 누명을 쓴 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것은 제가 대법 법리의 지도하에 원망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법에 들어선 시기가 비교적 늦고 또 홀로 수련하다 보니 때로는 자신이 잘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주 형편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법회 교류에 참가하고 매번 지난 일을 정리하면서 대법이 여전히 소리 없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정화해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사람에서 신으로 성취되는 길을 걷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과학적 관념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저는 일찍이 대법 수련에 들어가 신이 존재함을 믿었지만, 당시에는 신이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입문 후 수많은 기적을 직접 듣고 목격했음에도 늘 어딘가 허무맹랑하다고 느꼈습니다. 박해 속에서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하는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사람에서 신으로 성취되는 이 길에서 이미 아주 멀리 걸어왔음을 발견했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 이 정법 수련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자신의 수련에 대한 자신감 부족 같지만 사실 여전히 대법을 믿지 않는 것이며, 사부님과 대법을 믿는 정도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기점이 틀렸습니다. 명색이 정법시기 대법제자면서 마음속으로 늘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대법이 어떻게 자신이 박해받지 않도록 보증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제자, 곧 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대법이 박해받는 것에 직면해, 마음속으로 마땅히 어떻게 대법을 지키고 우주를 수호하며 중생을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경지에 도달한다면 또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법 수련은 때로 정말 어렵습니다. 수련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치를 고집스럽게 품고 습관적으로 사람의 사유에 따라 한다면 영원히 신의 길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수련하려는 사람에게 대법 수련은 또 매우 쉽습니다. 사부님께서 대부분의 업력을 우리를 대신해 감당하셨으니, 마음을 바르게 놓고 법공부를 제대로 하며 법의 기준과 요구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사부님의 보살핌 속에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속인 중에서 저는 사람의 관념과 과학적 관념이 매우 무거운 사람이며 깨달음도 좋은 편이 못 됩니다. 하지만 수련 중에서 저는 마음을 다해 법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전법륜'을 이미 5번 외웠으며, 사부님께서 각지에서 하신 설법도 체계적으로 20번 정도 배웠기에 사부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압니다. 비록 때로는 정진하지 못해 아주 느리게 걸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증상은 기본적으로 사라졌고 단지 몸이 약간 무기력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먼저 제 대신 차를 좀 운전해 주었고, 저는 차에서 잠시 잤습니다. 깨어나 보니 완전히 정상을 회복해 다시 100여 km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병업 상태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만 하면 사상 속에서 즉시 확고한 일념을 발했습니다. '즉시 멈춰라! 병업 교란이 나타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몸에 병업 상태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 다음 다시 제 수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제때 바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신의 일념은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 지어내는 것도 아니며, 수련해 낸 진실한 경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련 중에서 정진할수록 심성이 높아지고 경지가 높아지며 능력이 커져,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가운데 발휘하는 작용이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수련 중에는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5. 자아를 내려놓고 대법을 수호하다

대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박해받지 않게 할 것인가는 줄곧 풀리지 않은 마음속 매듭이었습니다.

안으로 찾아보니 서로 다른 층면의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명리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개인 수련 방면의 문제에 속합니다. 둘째,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수련에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었고, 구세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대





## 1. 본성을 되찾고 진아(眞我)로 가아(假我)를 대체하다

사람은 명리정(名利情-명예, 이익, 정)을 위해 살아가며 명리정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람에서 신으로 가는 이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련생들과 비교할 때, 제게는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는데, 바로 어떻게 사람의 이 껍질을 깨부수고 자신을 아주 단단히 싸매고 깊이 감춰둔, 집착해 마지않는 그 사람 마음들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수련생인데,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참 쉽게 수련하는 것 같아요. 성품이 어질고 후덕해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당신 수련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져요. 당신 스스로 두꺼운 껍질로 자신을 싸고,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건드리고 싶지 않은 집착을 꽁꽁 싸매놓고 있으니, 당신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 말은 매우 옳았으나 당시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껍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밖에서 그것을 찔러 터뜨리려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매번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전법륜(轉法輪)'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법을 외우는 과정 자체가 바로 착실히 수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란이 매우 컸습니다. 책만 들면 몽롱하고 졸음이 쏟아지며 마음이 불안정하고, 속인 속의 각종 잡념이 끊임없이 솟구쳤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하고 싶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없었고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다행히 법공부 기초가 있어서 이것이 연공초마(煉功招魔)로 마를 부른 것이고 마의 교란임을 알았기에, 끊임없이 배

척하며 끈기 있게 외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정념을 발했고, 머리가 맑아지면 다시 이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꼬박 2년 시간을 들여 '전법륜'을 한 번 다 외웠습니다. 이후로는 속도가 붙어 1년에 한 번 외울 수 있었습니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수련 상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특히 두 번째로 다 외운 후 그 변화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화강암처럼 완고하던 그 집착들이 어느 순간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완고한 집착을 진정으로 제거하기는커녕 제거하려는 생각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제거하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말 제거한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최소한 이런 완고한 집착들을 직면할 수는 있었고 밖을 싸고 있던 그 껍질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치 명리정 속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단번에 걸어 나온 것 같았고, 빠져나와 제3자의 입장에서 명리정을 살필 수 있게 됐다고 느꼈습니다. 대체 그것들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그 속에 빠져 취하고 미치게 만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보게 됐습니다.

먼저 명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속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그저 내심으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느끼는 일종의 감정일 뿐입니다. 남이 좋게 보면 기뻐하고 나쁘게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 역시 정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수련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정으로 인해 생겨난 일종의 물질입니다. 기쁠 때 심신이 즐겁게 되는 것은 하나의 집착이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소업하는 것이므로 나쁜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사





기 사부님께서는 우리가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과정에서 업력을 소멸하도록 안배하셨지 이런 무의미한 소업은 안배하지 않으셨으니, 저는 소극적으로 감내해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바르게 행해야(正行) 했습니다. 어떤 기후 환경 아래서든 더 이상 마음대로 기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의식적으로 기침을 억제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고 심지어 잠시 참을 수 있을 뿐이었으며, 그 후에는 기침이 더 심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날씨와 무관하다는 정념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기침을 억제했습니다. 점차 기침이 가벼워졌고 간격도 갈수록 길어졌으며, 마침내 기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착실하게 수련한 경험을 통해, 병업 고비를 넘는 방면에서 바른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고 심성의 누락을 제때 찾아내 바로잡기만 하면, 몸을 통제해 이런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나타나지 않게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세력을 부정하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번은 아들 가족이 타지에서 돌아와 우리와 사돈이 함께 며칠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일정을 마치기 전날 밤 식사 후에 숙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전신에 한기가 들고 두통과 목 통증이 느껴져 곧바로 정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요며칠간 스스로 너무 느슨하게 했고 각종 사람 마음이 너무 무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사상을 바로잡고 확고한 일념을 발했습니다. '절대 이럴 때 병업 교란이 나타나 수련하지 않는 속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정념을 발하고 누워 잤는데 밤새 혼미하게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수련인의 상태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스스로 찾아봐요.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기준에 도달한 건 아니잖아요.” 아내의 말은 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온종일 기침을 하니 비록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확실히 수련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수련의 시각에서 보면 신체에 병업 가상이 나타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업 고비를 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세력의 박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모두 자신이 병업 고비 방면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누락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 사유를 살펴보니, 기침이 업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저 수련 중의 이런 표현에 동의하는 것일 뿐, 속인 속에서 장기간 형성된 병에 대한 과학적 관념이 사유 속에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 변화, 감기 등입니다. 아마 이것이 구세력이 병업 형식으로 교란하는 구실일 것입니다. 똑같은 병업 가상이지만 사람 마음으로 보면 병이고, 개인 수련 시각에서 보면 업을 소멸하는 것이며, 정법 수련 시각에서 보면 교란이고 박해입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표현’의 차이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재하는 경지의 차이이자 사람 마음과 신의 일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착실히 수련하는 가운데 이 층차의 법리에 동화돼야 했습니다.

정념을 확고히 하는 것은 자신의 사유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침이 날 때마다 이것은 업력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며 날씨 등 외적 요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법시





람의 일종의 감정일 뿐입니다. 속인도 “외부 사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사명을 짊어진 정법시기 대법제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그토록 많은데, 어찌 그런 것들을 느낄 한가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利)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집착은 잃고 얻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반영하며, 속인 속에서 장기간 이익을 추구해 온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수련 초기에는 법리에 대한 인식 층차가 비교적 낮아 주로 이익을 잃으면 덕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본질적으로 이것 역시 이기적인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물질적 이익을 잃으면 덕으로 바뀌는 것은 우주의 특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익을 잃은 후 이것으로 심리적 균형을 맞춘다면 본질적으로 여전히 이익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부님께서 ‘정진요지2-마지막 집착을 제거하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통을 나는 다 알고 있으며 사실 나는 당신들 자신보다도 더 당신들을 소중히 여긴다!” 사부님의 이 말씀에서 저는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사부님의 정법 시각에서 보면, 대법제자는 사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수요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가운데 자신의 서약을 실현하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자신을 인식하면 사명과 책임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모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정법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토록 집착해 마지않는 명리를 또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소유한 부는 모두 자신의 덕으로 바꾼 것이며 또한 모두 대법의 자원입니다.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에 속인 상태에 부합해야 하고 속인의 정상적 생활을 유지해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잘 계획하고 안배하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대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저 재산관리인일 뿐입니다. 얼마만큼의 덕을 가져다가 공(功)으로 연화(演化)시킬지, 얼마만큼의 덕을 가져다 부로 전환할지는 모두 사부님께서 안배하시니, 마음을 바르게 놓고 다방면으로 균형을 잘 잡으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명리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정도 옅어졌지만, 명리에 비해 정은 내려놓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정이 비교적 옅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정을 내려놓고 사람에서 벗어나려 할 때 비로소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의 정을 예로 들면, 저와 아내는 30년에 가까운 정법 수련의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함께 천안문에 가서 법을 실증했고 함께 박해에 반대했으며, 함께 세 가지 일을 하며 사부님을 도와 정법했고 수련의 길에서 크고 작은 각종 고난에 함께 직면했습니다. 이미 단순한 부부의 정이 아니라, 수련의 길에서 서로 돕고 생사를 함께한 동수(同修)의 정도 있었습니다.

더욱 수련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 정이 무엇이 나쁜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제거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수련의 길은 모두 질서 정연해, 제거해야 할 때가 되자 상응하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착각하는 점이 있었는데, 고난 속에서 일단 안으로 찾으면 마치 자신이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안으로 찾아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근본적으로 구세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세력이 박해하는 구실은 바로 우리 수련 상태의 빈틈이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안으로 찾는 기점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으로 찾는 것은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수련하고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구세력의 박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에서 진정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확고하게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 4. 대법에 동화하고 신의 일념으로 사람 마음의 속박을 돌파하다

수련의 길은 사부님께서 모두 닦아 놓으셨고 능력도 알맞게 밀어 올려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의 관념에 속박돼 진정으로 법에 동화되지 못해, 감히 걸어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매번 승화한 후 자신의 관념을 돌파하고 신의 일념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즉시 새로운 경지가 열리게 됩니다.

병업 고비 돌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법을 얻기 전 몸이 비교적 건강해 무슨 병에 걸린 적이 없었고 수련 후에도 큰 병업 고비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날씨가 변할 때, 특히 겨울에 속인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법리상 이것이 병이 아니라 업을 소멸하는 것이며 세 가지 일을 하는 데도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을 먹은 적도 없었으며 보통 일주일 정도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침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한 달 넘게 기침이 멈추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

한동안 저와 아내 사이에 갑자기 불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견이 엇갈렸으며, 심지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법을 외운 후 어느 정도 제고돼 주도적으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모두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찾는 과정에서, 저는 충돌의 원인이 자아가 충격을 받아 원망심이 생겼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줄곧 아내에 대한 정이 확고부동하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조건부였고 자아가 충격받지 않고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자아를 건드리면 그것은 즉시 자아와 대립했고, 외부의 위협이 있으면 다시 자아를 거두고 정을 꺼내 외부를 향해 일치단결했습니다. 이는 제게 정의 나약함과 믿을 수 없음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본성', '진아(眞我)'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이 관념으로 형성된 '가아(假我)'이며, '가아' 밖에는 각종 정과 기타 사람 마음의 집착이 들러붙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명리정을 느끼는 것은 후천적 관념으로 구성된 '가아'이고, '본성'과 '진아'는 오히려 묻혀 있었습니다. 수련인이 만약 진아를 찾지 못하고 가아가 주재하는 상황에서의 이른바 수련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 수련이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진수해 진아를 되찾고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하려면 가아를 멸해야 하는데 가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속임수를 써 형식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며 바쁘게 보내게 하고, 스스로 아주 정진한다고 여기게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명리정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명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없으니, 바로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저 이 산속에





입니다. 수련의 시각에서 볼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안으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심성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련의 길은 사부님께서 안배해 놓으셨고 부딪히는 모든 일은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이니, 그렇다면 당연히 이 얻기 힘든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수련은 영원히 자신을 닦는 것이지 남을 닦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수련 길 역시 사부님의 안배가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남을 위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에게 안으로 찾게 하는 것은 스스로 무조건 안으로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가 때로 영문도 모르게 제게 태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으로 찾았지만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사상 속에 각종 나쁜 생각들이 있을 때, 혹은 사람의 일에 빠져 수련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제가 아직 의식하지 못할 때 아내는 자주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념이 아주 충분하고 심성이 매우 빨리 제고될 때는 아내의 태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때로 주위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반영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게 사람 마음이 무거울 때 사부님께서 주위 사람을 빌려 저를 일깨워주시고 채찍질해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 부딪히든 무조건 안으로 찾아야 하며, 마음을 바르게 놓기만 하면 항상 수련이 승화하는 계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으로 찾으려면 안으로 찾는 것과 구세력을 부정하는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저도 다른 많은 수련생과

있기 때문이라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전의 오랜 세월 동안 일하기에 바빠 진정으로 마음을 닦지 못했기에 근본적으로 밖의 이 껍질을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을 외우고 착실히 수련한 것은 밖에서부터 이 껍질을 깨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성 진아의 정념을 충실하게 했기에, 비로소 제가 정에서 벗어나 반대로 그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이 어떻게 해야 자비로 대체될 수 있는지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체득했습니다. 명리정이 조금씩 닦여 없어질 때, 각종 후천적 관념으로 구성된 가아가 약화될 때, 본성 진아가 착실히 수련하고 법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갈수록 강대해질 때, 이런 내심에서 흘러나오는 선(善)이 바로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수련 과정이 바로 반본귀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에서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수련 중 어떻게 해야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기적임에서 벗어나 사심 없는 경지를 닦아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타적이고 사심 없는 경지를 닦는 것 역시 수련 원만을 위한 것이니 여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가아의 주재를 받는 한 이기적인 뿌리를 제거할 수 없는데, 가아는 바로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아를 돌파하고 진아가 주인이 될 때, 자비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은은하게 이타적이고 사심 없는 경지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수련은 바로 이렇게 진실하고 실재하는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저 세 가지 일을 잘해 사람을 많이 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수련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당신과 함께 교류하고 제고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련생이 불쑥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줬는데…" 아내가 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전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완전히 당신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지, 위험이 크지 않은지 저울질해야 하니 대법이 요구하는 이타적이고 사심 없는 경지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수련인으로서 법의 기준을 모르면 안 되고 자신의 격차를 모르면 안 돼요." 수련생은 이 말을 듣고 단번에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수련의 기준을 얼마나 높게 세우느냐에 따라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고, 그만큼 높은 기준을 향해 닦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인은 매 순간 무조건 안으로 찾을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안으로 찾는 것입니다. 아내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아내가 제게 안으로 찾으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즉시 불평을 품었습니다. '둘 다 수련인인데 무슨 근거로 나더러 안으로 찾으라고 하는 거지?' 심지어 더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자꾸 나만 안으로 찾으라고 하는데 내가 수련을 다 해버리면 당신은 어쩌려고?' 나중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여전히 안으로 찾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마음속으로 여전히 안으로 찾는 것을 꺼리며, 특히 갈등 속에서 마치 자기가 먼저 안으로 찾으면 자기가 틀린 것이고 자기가 꿀리는 것처럼 여겼는데 사실 이는 사람의 관념이 전환되지 않은 것

## 2. 관념을 전환하고 신의 일념으로 사람의 생각을 대체하다

물론 수련의 진실과 실재함은 그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착실하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정에서 벗어나 그 본질을 되돌아보고 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명리정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경지와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서 장기간 형성된 각종 관념, 명리정에 대한 집착 및 그 배후에 얽힌 각종 역사적 연원과 요소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기에, 어찌 쉽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멸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업을 소멸하고 집착을 제거하려면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 사람은 날 때부터 고통을 거부하고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며 향락을 좋아합니다. 이 관념을 바꾸어 태연하게 고난에 직면하고 능동적으로 고통을 감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마음이 꽉 막혀 그 기분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고생을 낙으로 삼는 것'이 어떤 느낌이고 경지인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자신을 연공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해 사람 마음으로 대하면, 후천적으로 형성된 관념이 본능적으로 고통을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대한다면 이 이치는 완전히 반대로 됩니다. 고난에 직면해 일단 수련인의 사유로 들어가면 마음가짐이 즉시 바뀝니다. '이것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겨냥한 것이니 마땅히 내려놓아야 하므로 좋은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게 하려는 것이니 마땅히 직면해야 하므로 좋은 일이다. 이것은 나의 용량을 넓히려는 것이니 마땅히 참아야 하므로 좋은 일이다…'





주변에 수년간 알고 지낸 노수련생 한 분이 계시는데 법에 대해 매우 확고하십니다. 노수련생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내가 이 일을 잘못했어. 사부님께 죄송해!"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대법에 죄를 짓는 거야!" 혹은 "내게 문제가 있어, 내 마음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 등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노수련생은 정념이 아주 충분하고 세 가지 일도 매우 정진해 하십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아 법리에 대한 인식이 우리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마음이 아주 정성스럽고 순수하며 자신의 심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을 발견하기만 하면 즉시 폭로하고 바로잡으십니다.

그가 말한 자신의 바르지 못한 생각은 제가 보기에 모두 수련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그에게는 모두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식 속에서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존재해서는 안 되며, 모두 수련인의 수치였습니다. 만약 수련인이 모두 이런 기준으로 안으로 찾는다면 자신의 문제를 찾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진수제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정진 상태일 것입니다.

한번은 아내와 함께 고난 중에 있는 한 수련생과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련생은 자신이 평소 세 가지 일을 꽤 잘한다고 여겼고, 갑자기 나타난 고난에 대해 마음속으로 의아해했으며, 안으로 찾아봐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 욕심이나 쟁투심 등을 약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거듭 수련생을 일깨워주며 일하는 이면에 숨겨진 어떤 집착이 있는지, 어떤 기점을 품고 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약간 멍한 표정으로, 자신은 다른 목적을 품지 않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고통에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직면하며 도전을 받아들이는 수련의 마음가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으며 수련의 즐거움과 오묘함을 느꼈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태연함과 자신감, 그리고 승화한 후의 기쁨, 이것이 바로 '고생을 낙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일에만 체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체현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늘 현대인의 도덕 수준이 너무 낮아 사람과 어울리기 참 어렵고 좋은 사람이 되기도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수련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다 저의 제고를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나쁜 사람'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며(사실 반드시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며 그 속에 저의 집착이란 요소도 들어 있음), 저를 돕고 있는데 어찌 그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정말 체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되며, 당신은 정말로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그가 당신을 아래위로 납작하게 만들어 고개를 들 수 없게 했다고만 보지 말라. 당신은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에게 또 감사드려야 하는데, 정말 그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착실히 수련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이 경지에 도달하고 이 층차의 이치에 동화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또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이고 모두 제고를 돕고 있다고 느껴져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이 자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에 대해서는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사람에 대해서는 덕으로 원망을 갚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 마음가짐에 체현되는 관념의 전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즉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급히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반영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집착인지 살펴보고 다시 그 집착을 겨냥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바로 그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유는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집착심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련인의 사유는 집착심을 찾아내 닦아 없애면 문제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 3. 기준을 높여 무조건 안으로 찾다

사람은 갈등에 부딪히면 늘 남의 문제를 찾지만 수련인으로서 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 찾는 이것은 법보(法寶)이다."(각지 설법9-2009년 워싱턴DC국제법회 설법) 하지만 저는 사용할 줄 몰랐고 특히 처음에는 늘 일의 옳고 그름에 빠져, 찾으면 찾을수록 자신이 이치에 맞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집착심을 반영해 내는지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비로소 찾을 줄 알고 수련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안으로 찾을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수련 기준을 얼마나 높게 정했는지, 또는 진실한 수련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